

2011 WSAVA World Congress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정언승

2011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2011 WSAVA World Congress (이하 세계대회, 2011년 10월 13일~17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엔 개최되는 세계대회는 2007년 호주 시드니에서 말레이시아, 뉴질랜드와의 치열한 경합 끝에 개최를 확정된 대회이다. 세계 수많은 수의사들과 관련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할 이번 개최는 80여개 회원국에서 참여한 수의사들이 함께 만나 상호 협력, 우정을 나누며, 반려동물 의학에 있어 인수공통질병 예방 등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만남의 장이다. WSAVA(World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는 1959년 창립되어 1961년 영국에서 첫 대회를 개최한 51년의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으며, 80여개국 90여 단체의 76,000명 수의사를 대표하는 국제 협회이며 한국동물병원협회가 2003년 가입하여 산하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본 대회는 수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동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여러 인수공통 전염병의 근절에 기여할 것이며, 반려동물과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통한 생명 존중 정신의 실현을 위한 한국의 수의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년여의 유치준비 기간을 거쳐 WSAVA 본부의 말레이시아 지지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각 나라의 대표단을 접촉하여 역전을 이끌어낸 대회이니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난 4년간 대회조직위원회는 직접적인 해외홍보를 비롯하여, 홍보물제작, e-newsletter발행, 홈페이지 및 온라인 등을 통하여 대회를 홍보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각종 국제대회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경우 국가 브랜드 향상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주도적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굴뚝없는 외화벌이가 될 국제대회 개최는 직접 방문한 그 나라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련분야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의계 발전을 위하여 이번 세계대회를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를 들자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첫째, 아직 대한민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동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세계인들로부터 “동물 학대국”이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에게 보이지 않는 불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세계에서 온 수의사 및 관련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 및 인식변화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자동차 수 천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더 큰 한국브랜드를 높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대한민국은 OECD가입국이며 또 세계 10대 무역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반려동물 산업 및 대외적인 한국수의학은 실로 미미할 뿐이다. 아시아에

서조차 태국에서 이미 WSAVA대회 및 FASAVA대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의학 대회는 이번 세계대회가 처음이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의 수의학도 이미 일본에 견줄만큼 많이 발전했으며,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실력을 지녔음을 세계각국에서 모인 수의사 및 관련기업 관계자들에게 보여주어, 수의학의 변방에서 일약 주도적인 국가로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및 태국도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 소동물임상에서의 주도권 확보, 발언권 강화 등을 통하여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개발되고 생산되는 수의학 관련 제품들도 이번 기회에 외국 수의사들 및 기업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수의학 발전을 위하여서는 선진 수의학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이 명백한 사실이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석학 및 매우 훌륭한 수의학자들 및 뛰어난 수의사들이 많이 참여한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인적교류 및 친한적인 석학들을 만들어 둔다면 한국 수의학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넷째, 대한민국 소동물 임상수의사들은 너무 병원에 얽매이고, 좁은 병원내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좁은 병원내에 갇혀있던 시야를 넓힐 때가 이번 WSAVA2011 세계대회 그것일 것이다. 부가가치세 부과문제도 과천에서 수의사들이 한번 모인 것이 그 시작이요, 이번 세계대회를 계기로 많은 소동물 임상수의사들이 모이는 것이 그 정점일 것이다. 내 병원이요, 내 사업이지만 결코 나 혼자만 병원을 잘 한다고 해서 소동물 임상수의계의 모든 숙원과 숙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세계대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

하여 정운찬 전 총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의 거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많은 수의사들이 모여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수의사들은 이제 무시해서 되는 단체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며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수의사들의 발언권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각자 개인적인 사정과 병원문을 열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수의사들이 뭉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10월에 있을 세계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매우 많은 위기에 직면해 왔으며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 일본 동북부 대지진이 발생하고 원자력발전소 문제가 일본에서 발생했을 때 이미 등록된 등록자와 강사들이 일본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도 위험한 줄 알고 취소가 속출했으며, 많은 등록자를 기대했던 일본쪽도 지진의 여파로 현재까지 겨우 50여명이 등록했을 뿐이다. 물론 남은 2개월동안 일본과 다른 나라 참가자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에서도 발벗고 나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의사들의 참여가 더 요구된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대회이기 때문이다. 학교 졸업 후 각지에 흩어져 만나지 못했던 선후배들도 만나보고, 외국에 나가있는 동문의 소식도 들어보고, 많은 비용을 들여 외국학회에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수의학의 거장들도 직접 만나보고, 일상에서 벗어나 대한수의사회장대 골프대회도 참여해 보고, 저녁에는 잘 준비된 코리안나이트, 갈라디너 등에서 맛있는 음식과 공연을 보면서 외국수의사들과 교류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10월에 있을 WSAVA2011 세계대회인 것이다.

“대한민국 임상수의계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